

무형문화재 18호 김만희 선생

문화홍보원에서 민화전 열어



베를린】 지난 7일부터 주독한국문화홍보원(원장 김거태) 이벤트홀에서 풍자와 해학. 옛 이야기가 살아있는 민화전이 열리고 있다. 풍속화의 영역을 한국현대사까지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고 있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8호 민화장인 김만희 선생의 민화(民畫) 전은 1930년대부터 한국 전쟁 후 급속한 산업발달이 있었던 60년대까지를 추억으로 그린 풍속화와 민족문화의 여러 모습 중 생활철학과 감정을 그림 속에 구체화시킨 민족의 문화유산인 한국민화를 선보인다.

김만희 선생은 “한국(전통) 민화는 한국의 특수한 민속적 회화로서 태어나 오랜 세월에 걸쳐 궁중에서부터 서민의 생활공간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민족문화의 여러 모습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됐다”며 “민족의 생활철학과 생활감정을 회화형식 속에 구체화시킨 점과 민중의 생활 속에 정착해서 존속된 점에 민화의 의의와 중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민화장 김만희 선생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 18호 민화장으로, 국내 개인전 33회, 해외전 11회에 이르는 장인으로 전국공예품경진대회 본선심사(1981-1992),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2000-2002)의 심사위원으로도 나선 적이 있다.

Lippstadt에서 전시회를 갖고 많은 독일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 일으킨 김만희 민화전은 2월7일부터 3월11일까지 베를린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문화홍보원 이벤트홀에서 계속 전시된다.

*민화장(民畫匠) : 생활공간의 장식과 민속적인 관습에 따라 대중적·실용화인 민화를 잘 그리는 사람

[최홍국 베를린 주재기자]

▼ 전시회장의 관람객들

